

##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10.5)

□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### [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]

-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 
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美 국채금리 상승, 달러 강세 등  
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 
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.
  - 특히, 추석 연휴 기간의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이  
일시에 반영되면서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 
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.
-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 
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,
  -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 
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 
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.

### [ 최근 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 ]

- 조금 전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 
전년 동월 대비 3.7% 상승하였습니다.
  - 올해 들어 물가는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,  
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 
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 
두달 연속 3%대를 기록하였습니다.
  - 다만,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물가의  
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 
근원물가\*도 3%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계절적 요인이  
완화되는 10월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\*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

□ 하지만,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, 정부는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- 특히,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」을 마련하여 배추·무 할인지원, 정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김장 부담을 덜어드리고,
  -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 1.5만톤을 최대한 신속히 출하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.
- 석유류는 국제유가 대비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업계 협력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,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「동절기 난방비 대책」을 이달 중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.

#### [ 최근 경제 동향 ]

- 한편, 우리 실물경제의 경우, 생산·수출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.
- 8월 광공업생산이 우리 경제 견인차인 반도체 생산의 큰 폭 개선에 힘입어 3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였고, 제조업 가동률도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.
  - 9월에도 반도체·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선전으로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  - 다만, 고금리 장기화, 주요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,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#### [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]

-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경제 규제혁신 TF 운영 등을 통해 약 15조 8천억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한 데 이어,

- 이번에는 반도체,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규제·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- ❶ 이차전지의 경우, 벽·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.
- ❷ 또한, 심야 자율주행 버스,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더욱 빠르게 국민들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달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❸ 아울러, 가까운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과 설치기준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.

#### [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촉구 ]

-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도 계류되어 있는 경제 관련 현안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
- 특히, 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」의 경우 예정된 10월 15일에 일몰이 된다면
  -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·만기연장 등 지원이 제한되어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, 일몰 기한이 연장되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·처리를 당부드립니다.
- 또한, 지난해 1월 시행된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경우 산업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도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,
  - 약 77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인 만큼,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.

[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전략 ]

□ 다음은 선박의 운용·관리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전략입니다.

- ❶ 우선, 자율운항 기술 등 42개의 핵심기술\* 확보와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 민간부문 서비스\*\*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2,300억원의 R&D 투자를 하겠습니다.

\* AI 기반 선박-항만 물류 최적화 기술, 지상 및 위성 통합 모뎀 기술 등

\*\* 선원·여객 원격 건강관리, 위험화물 원스톱 검사 및 정보공유 서비스 등

- ❷ 또한, ‘바다내비 시스템’의 실시간 선박 위치정보 등을 개방하여 민간기업이 혁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.

\* 바닷길 안내, 해상교통기상 정보, 충돌좌초 위험 등을 실시간 안내하는 공공 시스템

- ❸ 아울러, 수출 제품 해외인증 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,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211개 현지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분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
□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하여 해수부 장관님의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.  
(해수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